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이 보고서는 2021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김 완 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최 금 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기준(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이하 GFSM 2001)에 따라 정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GFS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정부 재정통계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준의 재정수지는 16조원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 및 부채는 각각 3,836조원과 812조원으로 순자산은 3,024조원이다.

GFS는 기초 저량에 기증 유량을 반영하여 기말 저량을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에 반영되어 재정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 1 GFS 재정지표

GFSM에 따라 산출되는 통계 보고서의 재정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정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유형	2019년 규모 (GDP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65조 (3.4%)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sup>1)</sup>	16조 (0.9%)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3,024조 (157.6%)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803조 (41.9%)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811조 (42.2%)	총부채-주식및기타지분 과 파생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1) GFSM 2001에서는 순융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 2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정부운영표상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음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535	5.9	568	6.3	610	7.4	634	3.9	655	3.4
총지출(B=C+D)	515	6.4	525	2.0	563	7.2	575	2.2	639	11.2
총비용(C)	470	6.2	483	2.7	517	7.0	538	4.0	591	9.8
비금융자산의순취득(D)	45	8.7	42	△5.8	46	8.5	37	△19.0	49	30.7
순운영수지(A-C)	64	3.7	85	32.2	93	9.6	96	2.8	65	△32.4
재정수지(A-B)	20	△6.2	43	119.8	47	10.8	59	23.9	16	△72.2

GFSM에 따라 산출되는 주요 재정수지 관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해오다 201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총수익의 증가(사회보험료, 조세 등 전기대비 3.4%)보다 총비용의 증가(사회급여, 보조 등 전기대비 9.8%) 및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증가(전기대비 30.7%)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전기대비 11.2%)가 더 크게 발생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에 기인함

< 재정수지 5개년 추세 >

(단위: 조원, GDP대비%)



### 3 자산과 부채의 추세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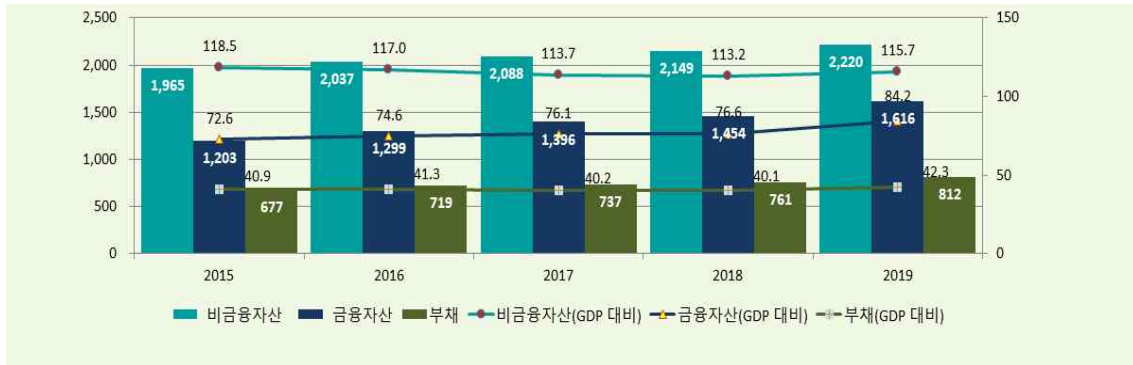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491	4.1	2,617	5.0	2,747	5.0	2,842	3.5	3,024	6.4
자산	3,169	5.1	3,336	5.3	3,484	4.4	3,603	3.4	3,836	6.5
비금융자산	1,965	2.7	2,037	3.6	2,088	2.5	2,149	2.9	2,220	3.3
금융자산	1,203	9.2	1,299	8.0	1,396	7.5	1,454	4.2	1,616	11.1
부채	677	8.9	719	6.1	737	2.6	761	3.2	812	6.7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9년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부채의 GDP 대비 규모는 2017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로 전환됨

< 자산과 부채의 5개년 추세 >

(단위: 조원, GDP대비%)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2018년까지 소폭으로 증가해오다 2019년에 큰 폭(7.6%p)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식및기타지분이 6.4%p, 기타미수계정이 1.3%p 증가한 것에 따름

< 금융자산 항목별 5개년 추세 >

(단위: GDP대비%)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이전의 감소 추세와 달리 2019년에 전기대비 2.5%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성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및구조물과 토지가 전기대비 각각 0.6%p, 1.8%p 증가한 것에 따름

< 비금융자산 항목별 5개년 추세 >

(단위: GDP대비%)



## 4 자산과 부채의 변동원인

2019년 자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산소비)가 49조원, 토지 평가 등으로 인한 보유손익이 16조원, 누락자산 등재 등으로 인한 기타내용변화가 7조원 증가하여 총 72조원이 증가하였음.

금융자산은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주식및기타지분 취득 등의 거래로 66조원, 주식및기타지분 및 기타미수계정 등의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90조원, 기타내용변화 5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62조원이 증가하였음.

2019년 부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거래로 50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으로 1조원, 기타내용변화로 0.4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51조원이 증가하였음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음

### <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

(단위: 조원)

	2019 기초	변동 내역(flow)			2019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603	114	106	12	3,836
비금융자산	2,149	49	16	7	2,220
금융자산	1,454	66	90	5	1,616
부채	761	50	1	0	812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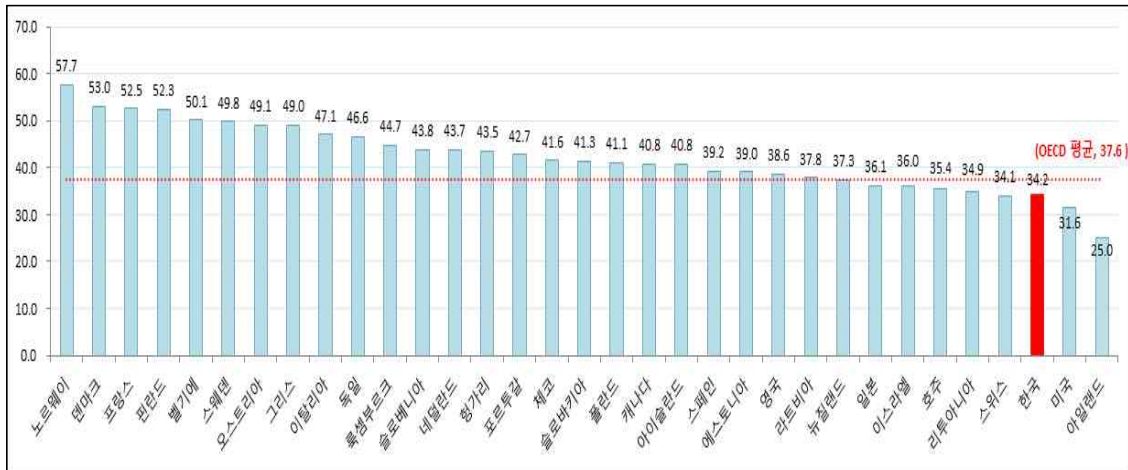
	2018 기초	변동 내역(flow)			2018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484	113	△7	13	3,603
비금융자산	2,088	37	2	22	2,149
금융자산	1,396	75	△9	△9	1,454
부채	737	17	6	1	761

## 5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입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9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 대비 34.2%로 OECD평균인 37.6%에 비해 낮은 편임

< 2019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비교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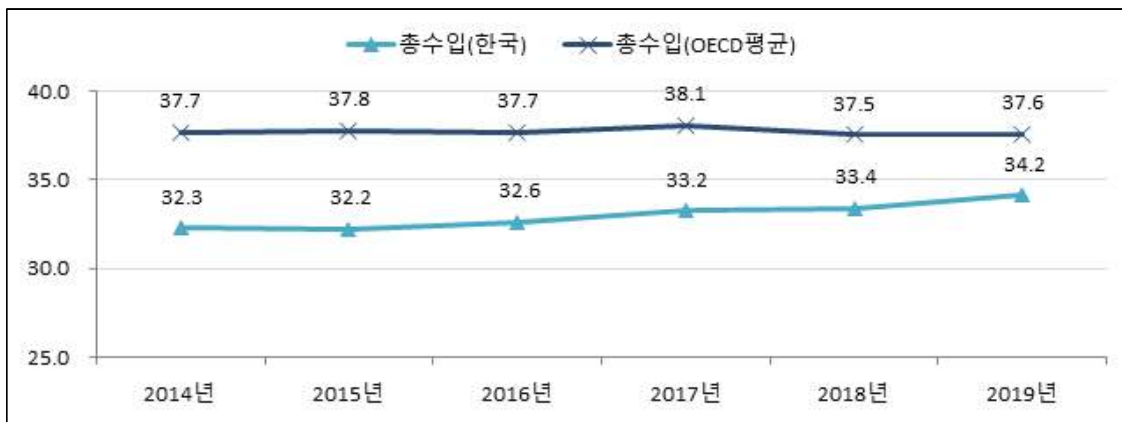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

우리나라 GDP대비 총수입은 '14년 32.3%에서 '19년 34.2%로 1.9%p 증가한 반면, OECD평균은 '14년 37.7%에서 '19년 37.6%로 0.1%p 감소

< 2019년 일반정부 GDP대비 총수입 추이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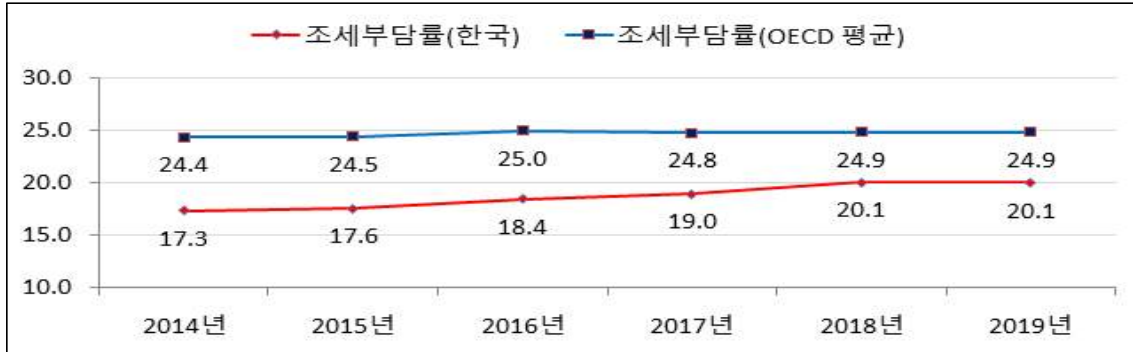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

2019년 일반정부 조세부담률(조세/GDP)은 20.1%로 전년과 동일함. 조세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20%대 수준으로 OECD평균인 24~25%대 수준에 비해 낮은 편임

< 조세부담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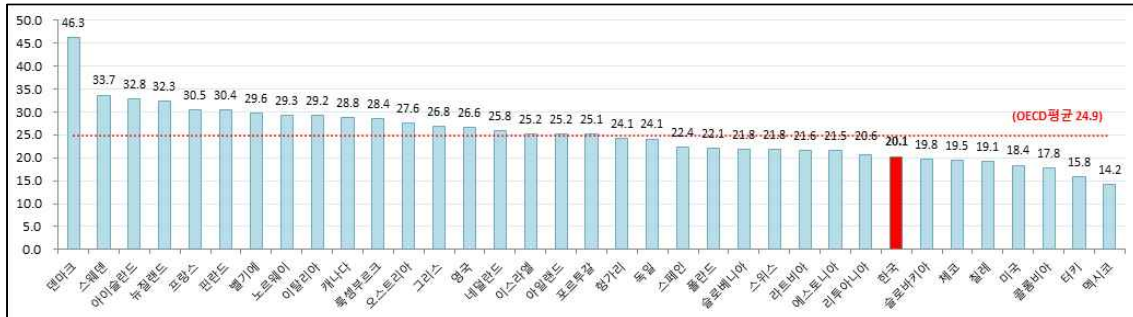
(단위: GDP대비%)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2019년 OECD 평균은 잠정치이며,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

< 2019년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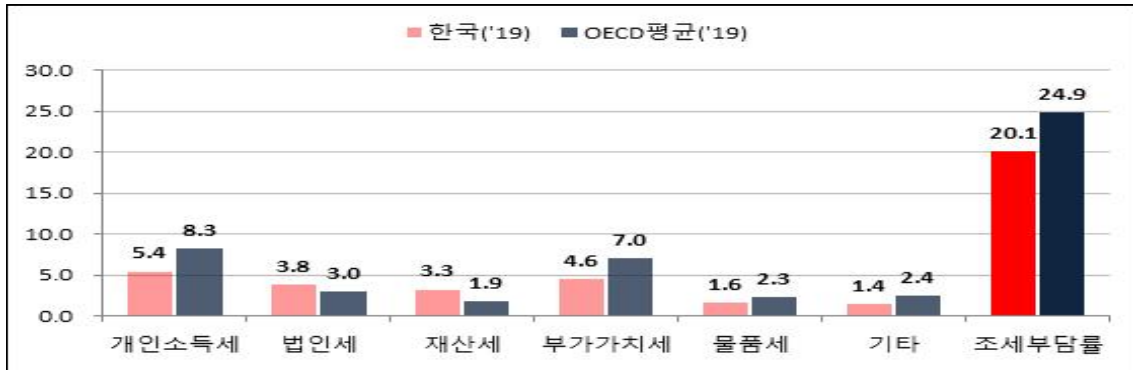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OECD 평균은 잠정치이며,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

2019년 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평균보다 낮으나, 법인세, 재산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2019년 조세부담률 항목별 비교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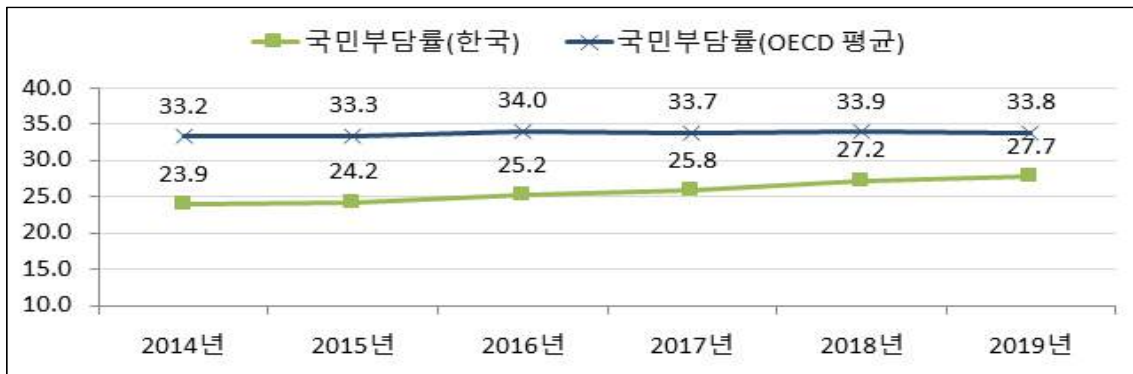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OECD 평균은 잠정치이며,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

2019년 일반정부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GDP)은 27.7%로 전기(27.2%) 대비 0.5%p 증가하였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33.8%)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국민부담률 추이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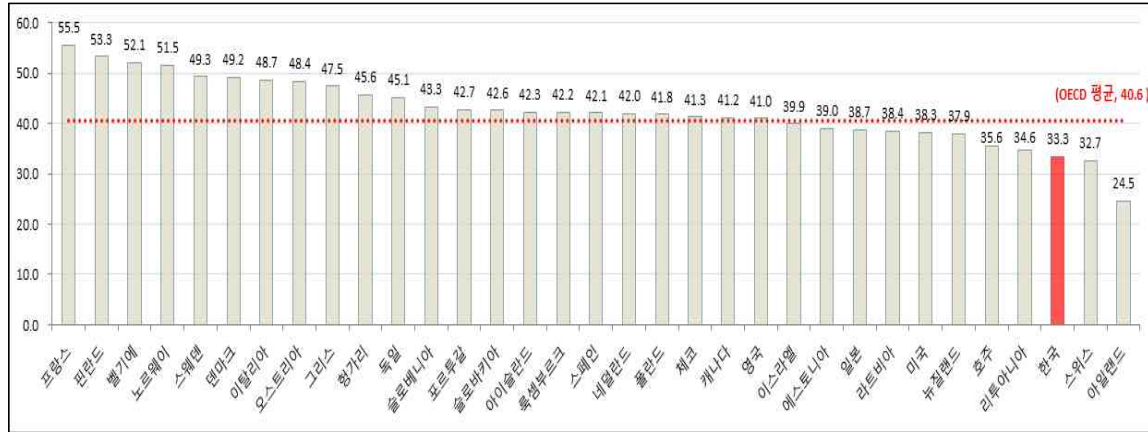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

2019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OECD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대비 33.3%로 OECD평균인 40.6%에 비해 낮은 편임

< 2019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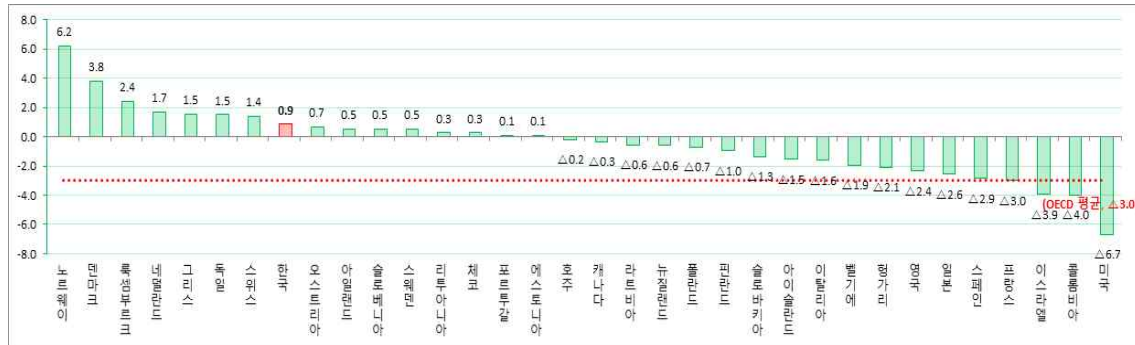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

2019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0.9% 흑자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3.0% 대비 양호한 편임

< 재정수지 국제비교 >

(단위: GDP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